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기회를 잡아라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자간호사만의 장점을 살리고 자기개발에 힘쓰자.”

남자간호사들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병원간호사회가 ‘남자간호사의 간호역량개발’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4월 5~6일, 19~20일 두 차례 진행됐다.

강사들은 남자간호사들에게 비전을 갖고 준비된 사람이 될 것과 남자간호사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정현철 대한남자간호학회교수협의회장은 “현재 남자간호사들이 여러 분야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자마다 미래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을 주문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미리 준비해야 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상이 자라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남자간호사들도 비전을 갖고 꾸준히 발전해나자”고 말했다.

장창섭 서울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수간호사는 “남자간호사는 조직 내에서 희소성을 지닌 인력자이며, 임상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인 상황판단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개발에 힘쓰고, 무엇보다 임상에 오래 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지식과 함께 감정·공감·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으로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수는 “남자간호사는 퍼스트팬과 같은 존재”라며 “직(職)을 중요시하기보다 업(業)에 대해 고민하고 충실히 임한다면, 자신의 업무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고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수는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남자를 합격자 2134명을 포함해 총 1만 2676명이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사하라사막 마라톤 참가 김보준 간호사 간협, 완주 응원하며 격려금 전달

소아암 환우를 돕기 위해 ‘사하라사막마라톤’에 도전하는 남자간호사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보준 간호사(27세·사진 왼쪽)가 회제의 주인공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김보준 간호사의 완주를 응원하며 격려금을 4월 19일 전달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와 간호사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라톤을 완주하길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사하라사막마라톤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4월 30일~5월 6일 열린다. 어드벤처레이스 회사인 레이싱 더 플래닛(Racing The Planet)에서 개최하는 4대 사막마라톤 중 하나이다.

뜨거운 모래사막 총 250km 거리를 일주일 동안 나눠서 달리며,



이를 간 무박으로 80km 달리기 등의 극한 레이스가 포함돼 있다. 매일 정해진 거리를 완주해야 하는 서바이벌 방식이다. 최소한의 음식·옷·침낭 등을 담은 배낭을 메고 달리는 강행군이다.

김보준 간호사는 그동안 무인도 생존, 고공점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온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이다. 이번 도전을 앞두고 조선일보 춘천마라톤을 완주했으며, 서울국제마라톤(동아마라톤)을 물통을 넣은 배낭을 메고 완주했다.

특히 김보준 간호사는 소아암 환우 돕기 기부금을 낸 후원자들의 명찰을 배낭에 붙이고 달릴 예정이다.

마라톤 참가에 앞서 ‘사하라사막에 피는 꽃’ 나눔 프로젝트를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전문사이트 와디즈(wadiz.kr)를 통해 진행했다.

마라톤 거리 1km당 1만원씩을 목표로 시작했으며, 총 294만원을 모금했다.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암 환우의 치료비 및 수술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김보준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이번 도전과 나눔에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배려해 주신 수간호사 선생님과 동료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부산시간호사회 간호사 리프레시 데이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회원들의 재충전을 돕기 위한 리프레시 데이를 상반기에 총 4회 개최한다.

1차 리프레시 데이는 ‘스마트폰으로 명품사진 찍기’ 주제로 4월 13일 열렸다. 간호사들은 김동준 사진작가로부터 사진 촬영법에 대해 강의를 들은 후 부산시민공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차는 ‘소이캔들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주제로 5월 11일, 3차 및 4차는 ‘핸드드립으로 나만의 커피 만들기’ 주제로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숙현 기자 shkim@



정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na.or.kr) 참조.

이영은 회장은 “회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벗어나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간호사회 회원역량강화 교육

충남간호사회(회장·이순옥)는 회원역량강화 교육으로 ‘사례별 노무관리 및 병원인증평가 설명회’를 4월 13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병원 간호관리자 87명이 참석했다.

문강보 행복한일연구소 대표가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노사관계에 대해 강의를 했다. 정영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 참석자들이 노무관리 및 병



원인증평가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옥 회장은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임상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관리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경남 거제시간호사회 총회 ... 신순아 회장 선출

경남간호사회 산하 거제시간호사회가 제7회 정기총회를 4월 12일 열고 새 회장으로 신순아 거제시보건소 진료담당계장을 선출했다.

신순아 회장은 “간호사회 조직 강화에 주력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에 힘쓰겠다”면서 “전문직단체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이경옥 경남간호사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박선숙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거제시간호사회 감사패를 조정의 전 거제시간호사회장이, 공로상을 이영진 거북병병원 간호팀장이 받았다.

김숙현 기자 shkim@

한국Q간호사회 총회... 천자혜 회장 재선임

한국Q간호사회는 2017년 정기총회를 4월 21일 열고 천자혜 현 회장(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부장·사진)을 재선임했다.

부회장에는 김민숙 서울대병원 QA팀장과 김효선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PI팀장이 선출됐다.

한국Q간호사회는 올해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전담인력 교육기관으로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키로 했다.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환자안전실무지침서를 개정



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환자경험평가에 대비해 환자경험 만족비교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자혜 회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체 개발 및 공유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국군간호사관학교 ‘제1회 간호연구 아카데미’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윤원숙 장군)는 간호장교의 연구수행 역량 증진과 임상간호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간호연구 아카데미’를 4월 14일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연구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연구현상 탐색 및 연구방법론’ ‘연구논문 검색’ ‘연구통계방법’ ‘효과적인 학술지 게재전략’ ‘연구윤리’ 주제로 강의와 맞춤형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군건강정책연구소장 정유미 소령은 “군 임상연구 활성화는 연



구소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이번 간호연구 아카데미는 임상근무자들의 연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해소해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앞으로 간호장교들의 연구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간호실무자의 연구역량 증진과 군 간호연구 수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ijoo@

임미영 서일대 교수, 비행 중 응급환자 신속 대처 생명 구해

비행 중에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승객의 생명을 구한 간호사 소식이 알려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임미영 서일대 간호학과장.

임미영 학과장은 올해 2월 7일 새벽 2시 경, 말레이시아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의료진을 찾는다는 긴급방송을 들었다. 자신이 간호사임을 알리고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 승객의 상태를 확인했다. 승객은 호흡은 있었지만 동공 반사가 없었고, 통증 반사도 미약했다. 동행한 가족들로부터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임미영 학과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 착륙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타이완 타이베이 공항으로 기수를 돌렸다. 새벽 4시 경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에 의해 승객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응급수술을 받고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미영 학과장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침착하게 도와준 승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함께 있었던 딸에게 임마가 간호사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김스트레칭, 압박요법 등을 접목시킨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OJO 방식도 수면과약배출법이 화상환자들의 화상흉터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상하지 말초부종과 화상 및 외상수술 후 생기는 림프부종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국제학회에서 ‘오정옥 피부재활간호요법’ 발표

오정옥피부재활센터 임상연구소 오정옥 소장(한국피부재활간호사회 회장)이 제2회 국제립프심포지엄에 연자로 초청됐다. 심포지엄은 중국 상하이에서 4월 18~19일 열렸다.

오정옥 소장은 OJO 방식(오정옥 방식 피부재활간호요법)을 적용한 도수입과약배출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OJO 방식은 마사지에 이오마요법, 경락, 림프순환, 스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